



# 수능 국어 공부 방법

안녕하세요. 로드맵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한의대생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수능 수학에 이어서,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작성했으니, 꼭 읽어봐주세요..!  
공부하다 집중 안 될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읽어보고 궁금한 점은 카운터로 와서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 국어에 재능이 없는 사람

저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는 축구선수 생활을 하며 보내느라 독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신 3등급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수능도 3등급을 맞았습니다.

이후, 재수 생활 하반기에 수능 국어 공부 방법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 방법을 삼수 1년 동안 적용함으로써, 수능에서 백분위99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긴 수험 생활을 돌아보며 확실하게 깨달은 점은 하나입니다.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어를 제외한 타과목의 경우 방법이 잘못돼도 공부량으로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그 방향이 옳지 않다면 '전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어는 공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제 방법을 학생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후술할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한 제 생각과 공부 전략을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CH1. 수능 국어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수능 국어는 학생들이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 1. 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글의 정의는 “생각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 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네요.

다양한 표현으로 생각을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란, 화제어와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정의합니다.  
학생분들도 직접 생각의 정의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어떨까요? 아마도 제 의견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글을 ‘화제어와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이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 2.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는 앞서 글을 ‘화제어와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화제어와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화제어는 곧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읽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글을 많이 읽다보면 노베이스 친구들도 화제어는 다 뽑아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 CH2.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는 앞서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구조도를 그리는 행위 자체가 관계성을 파악하는 행위이다

관계성을 '구조도'로 표현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구조도를 그리는 행위 자체가 관계성을 파악하는 행위가 되는 것 또한 자명합니다.  
구조도를 그릴려고 골똘히 고민하고, 선생님의 구조도와 비교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곧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 2. 글을 이해하는 것 vs 구조도 그리기

간혹, 먼저 글을 이해해야 비로소 구조도를 그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조도를 그리면서 공부하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완벽한 구조도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대로, 구조도는 글을 이해해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도를 그릴려고 골똘히 고민하는 과정이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글을 이해하는 과정' 아닌가요?

즉, 구조도를 그리는 과정이 곧 글을 이해하는 과정이기에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싸매가며 구조도를 그려보고 선생님의 구조도와 비교하고 구조도를 수정하는 과정이  
곧, 글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 ※

- ① 수능 국어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 ② 글은 화제어와 화제어 사이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관계성을 파악하여 구조도를 그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곧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과정이다.

## CH3. 글의 흐름과 핵심을 파악하자

구조도를 이용해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글의 흐름과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 1. 글의 흐름이란 무엇일까?

글의 흐름과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글의 흐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글의 흐름이란, “글을 구성하는 여러 소주제의 요지와 소주제 사이의 순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글을 구성하는 소주제의 요지와 소주제 사이의 순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2. 글의 흐름은 동의어와 +a로 파악하자

그렇다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동의어와 +a’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소주제가 바뀌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소주제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과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① 반복되는 내용 (동의어) ② 새로운 내용 (+a)

이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소주제의 요지와 소주제가 바뀌는 지점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만 글을 구성할 수 없기에, 동일한 내용을 계속 paraphrasing 할 것이고 반복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끝나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동의어를 잡는 것입니다.

동의어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a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어는 소주제의 요지가 되는 것이고, +a는 소주제 요지이자 순서까지 되는 것입니다.

### 3. 글의 핵심은 숨겨놓지 않는다

글의 구조와 흐름까지 파악했다면, 핵심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수능 지문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핵심을 퐁퐁 숨겨놓지 않습니다.

핵심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여,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까지 읽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 CH4. 국어 공부는 왜 어려운 걸까?

우리는 지금까지 국어 공부 방법 정확하게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나요? 국어 공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인① 동의어 파악의 어려움

앞서 제가 paraphrasing를 찾아서 동의어를 파악하여,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어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두 표현이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바로 동의어 파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재능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결방법① 문장형식과 논리구조를 공부하자

동의어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서술 범주 구분, 이항 대립, PCS 구조 등의 문장 형식과 논리 구조에 대한 지식입니다. 문장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글이 구성되는 논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동의어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명쾌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우고 적용 연습을 해도 동의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기간에 실력을 쌓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바로 국어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수능 국어 논쟁거리〉 그읽그풀 vs 구조독해

수능 국어에는 오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읽그풀과 구조독해 사이의 의견 대립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에 대한 제 의견은 “그읽그풀과 구조독해 모두 필요하지만 구조독해가 그읽그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입니다.

어렸을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선조들의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ㅎㅎ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당연히 “큰 숲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를 밀도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에 비유하자면, 그읽그풀은 나무에 해당하고 구조독해는 숲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큰 틀을 먼저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원인② 국어 공부 전략의 부재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국어의 경우 꾸준하게 양질의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결방법② 2~4등급 학생을 위한 국어 공부 전략

### 1st. <루틴-메인-서브>로 국어 공부를 분류하자

국어 공부는 <루틴-메인-서브>로 구분해야 합니다.  
방대한 양을 그저 '국어 공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만 넣는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공부를 빼먹거나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공부 내용을 분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루틴-메인-서브>는 학생의 학습 상황과 학습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습에 대해 천천히 되돌아본 후,  
아래의 개념과 예시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공부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 <루틴-메인-서브> 공부 계획 예시

- ① 루틴 공부: 루틴 공부는 영단어 암기와 같이 매일 진행해야 하는 공부를 의미합니다.
- ② 메인 공부: 현재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부를 의미합니다.
- ③ 서브 공부: 추가적으로 가끔씩 진행하는 공부를 의미합니다.

국어 공부	루틴	- 글 읽는 연습 (공부했던 지문으로 복습) - 선택과목 실모 문제풀이 및 오답분석
	메인	- 강기분 독서, 문학 강의 수강
	서브	- 2주에 한 번씩 국어 실모 풀이 및 오답

### 2nd. 문학 메인 공부는 제재 별로 코어를 만든 후 루틴으로 돌리자

문학은 제재 별로 구분하여 공부함으로써 CORE를 먼저 만든 후 루틴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시를 일주일 동안 체계화 했다면 그 다음주에는 현대시 기출 한 지문씩 매일 분석하면 됩니다.  
인강과 유튜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7일 동안 하나의 제재에 대한 공부법, 문풀법, 행동강령 등을 총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는 사전 지식이라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게 내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후 암기합니다.  
그 후에는 체계화한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